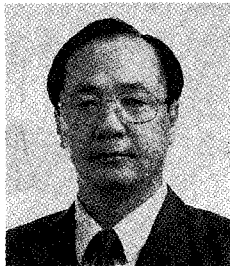


## 양계산업의 질적, 양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회활동에 중점을...



이 규 호

한국가금학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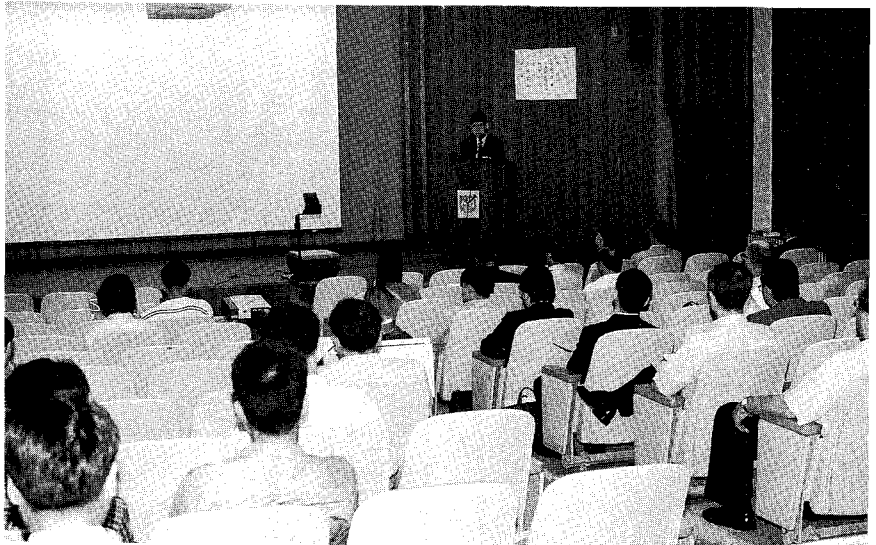
강원대학교 동물영양지원공학과 교수

**다** 사다난했던 신사년(辛巳年)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 임오년(壬午年) 새해를 맞으면서 양계인 여러분의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연초에 있었던 30년만의 흑한과 폭설피해, 90년만이라는 긴 가뭄, 그리고 유럽의 광우병 사태로 인한 동물성 사료의 사용금지 조치와 사료가격 인상, 닭고기 수입증가와 신종질병의 만연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양계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농사는 풍년이었고, 계란가격과 육계 가격 및 초생추 가격이 모두 예년에 비해 높게 유지된 것은 불행중 다행이었으나, 그 원인이 폭설과 흑한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질병의 만연, 종계의 생산성 저하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서 마냥 즐거워만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임오년 새해에도 양계인들은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생산조절로 가격과동을 최소화하고, 가금인플루엔자와 ORT 등 신종질병에 대한 방역대책수립, 그리고 현안 문제인 종계의 생산성 저하 대책, 난가 고시제도의 개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계란등급제도를 둘러싼 갈등해소와 정착, 자조금 제도의 입법화와 시행에 대비한 준비, 육계 계약사육 및 계열화 사업의 개선 등 산적한 문제점들을 성숙된 자세로 현명하게 해결하여 우리나라 양계산업에 큰 발전이 있기를 축원하는 바이다.

한국가금학회는 우리나라 가금학과 가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계와 산업계가 연계하여 1973년에 창립한 후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한국가금학회는 우리나라 축산관련 학회 중에서 학계와 산업계의 산학협동이 가장 잘 이루어지며 또한 축산분야와 수의분



△한국가금학회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학회 세미나 장면)

야의 협력이 긴밀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는 양계 산업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양계인들의 가금학회에 대한 애정과 협조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학회를 아껴주시는 여러 양계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학회 발전을 위한 배전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임오년 새해의 한국가금학회 주요 활동 계획은 첫째, 금년에 있을 학회창립 30주년 행사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연초에 각계의 인사를 망라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의 도약과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내용과 추진 계획을 협의하고 착실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며, 둘째로 해마다 4월에 실시하는 산학협동 심포지엄은 양계업계의 현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제를 업계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과 발표자를 선정해 열띤 토론과 내실 있는 산학협동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가금학의 학문적 발전과 회원

및 후진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6~7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11월중에는 회원들의 학술논문 발표회와 신진학자 특강 및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학술발표회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우수논문 발표 경연과 표창을 함으로써 후진양성을 도모하고 새로 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가 자기의 연구내용을 발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기진작을 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회로서 가금학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학회지의 발간이라 할 수 있는데 지난 2년간 년3회 발간하던 학회지를 새해부터는 년4회로 증간하고 학회지의 양적, 질적 발전에 학회의 역량을 경주할 계획에 있다.

양계산업의 발전에는 학계와 업계, 학회와 협회가 마차의 두 바퀴와 같아서 양쪽이 다 필요하고 균형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학회의 업계에 대한 관심과 협회의 학회에 대한 애정으로 양계산업이 일취월장(日就月將)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양계**